

※칼럼 내용은 본 신문의 論調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하도급 공정하고 정당하게

#### ① 못 받은 전기공사 하도급대금 받는 방법

일선 현장에서 전기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때인 경우 흔히 민사소송의 절차로 채권보전 조치와 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의 수순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당 전기공사 계약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을 바로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 형태를 취하기 보다는 해당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청(원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통한 조기해결, 미지급금 조기 지급유도를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용역위탁, 제조위탁, 수리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도 하도급관계나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 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원사업자란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중소기업에 제조 등을 위탁한 자, 또는 ②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는 시공능력평가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용역위탁의 경우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자신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와 도급거래를 하더라도 원사업자에서 제외한다. ③ 계열회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말한다.

또한 위탁의 종류 중에 전기공사와 밀접한 건설위탁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그 밖에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7항이 정하는 사업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가 그 업무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의 당사자에게 출석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해당 전기공사계약이 하도급거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통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 부과,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임원 등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용이하게 될 수 있다.



황보윤  
중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하도급 전문)

### 등촌광장



김성우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겸임교수

지난 기고에서 똑똑한 도시에는 4차산업혁명 기술이 필수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 사례도 제시했다. 이는 도시가 과거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이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방식을 대체할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고 이를 에너지거래에 활용하면 보안성향상, 거래비용절감, 참여확대, 시스템효율성증대 등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최근 상술한 핵심트렌드에 올라탄 스타트업들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호주의 파워렛, 영국의 에너지마인, 싱가포르의 Electrify 등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과거 에너지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업모델을 만들어 내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며 ICO(Initial Coin Offering)로 자금조달에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Death Valley를 막 지난 일부 운 좋은 스타트업의 성공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성공이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전조라면, 지금 우리가 간과하는 이 엄청난 기회에 대해서 미래에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그리드플러스라는 스타트

### 에너지스타트업과 4차산업혁명

업이 블록체인 기반 이더리움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태데리포함) 소비자 및 기존 고객들이 전력을 도매가로 서로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매장치를 올해 론칭한다.

또 뉴욕의 브루클린 지역에서는 프레지던트 스트리트의 50가구를 대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최초의 P2P 전력 거래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과 같은 전력회사 없이 개별 가정이 직접 전기를 사고파는 거주자 중심의 지역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력 거래 방식을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01호와 102호의 주민이 각자가 생산한 전력을 사고팔면 그 순간 하나의 거래가 발생한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가구에서 그 두 가구의 거래를 인증한다. 일종의 '증인'이 되는 셈이다. 나머지 사람들의 인증이 완료되면 그 거래는 하나의 블록이 되어 저장된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많은 블록들이 생겨나서 체인처럼 연결된다.

한국전력과 같은 회사가 중간에 개입해서 두 가구 사이의 거래를 확인하지 않아도 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이다.

분산전원의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 해안을 덮쳤을 때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많은 가정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분산 전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

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밖에도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 이웃 간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거래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응용사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그리드는 스마트시티의 핵심이기도 하다.

기술 측면을 살펴보면 과거의 중앙집중식 시스템이 분산형으로 바뀌게 된다. 전통적인 개념의 도시를 보면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도로, 교통, 통신 등 모든 인프라들이 중앙집중화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효율을 주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으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

태양광을 이용, 각 가정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만 해도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는 그 장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과거의 방식을 대체할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4차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있다. 브루클린 이외에도 텍사스의 그리드 플러스, 스위스의 마이 비트, 호주의 파워 렛저, 네덜란드의 파워 피어스 같은 유사 사업들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런 배경에서 브루클린 이외에도 텍사스의 그리드 플러스, 스위스의 마이 비트, 호주의 파워 렛저, 네덜란드의 파워 피어스 같은 유사 사업들이 확산되고 있다.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와 유사한 스타트업에 향후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가 필수가 되는 사회가 올 것이다.

### DIGITAL경제시대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두 정상이 만난 뒤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가 기다렸다는 듯 활발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애초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이 의제로 잡히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때문에 철도, 도로, 전력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과 업계에서는 경협에 대비한 준비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코레일이 지난 3월 남북 철도 연결을 전담할 남북대륙사업체를 신설

한 것에 이어 한국도로공사 역시 이번 상반기 안에 남북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에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고려하는 기업 역시 이번 경협에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자동차 업계부터 에너지업계까지 북한이라는 블루오션 등장에 들

어보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최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 국내 자산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재현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최고 8%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이 적극적 교류나 완

### 신남북경협, 경제성장 반등 기회 될까

픈 것이다. 이렇듯 기업들이 신남북경협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남과 북이 함께 동북아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경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서다. 지난 남북 경협이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이나 관광 교류 등에 집중했다면, 이번 경협에서는 철도·SOC 등 경제성이 배가된 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외교(평화)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가 부합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전한 통합에 이를 시엔 10~15%까지 코스피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평화 체제 구축 외에도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성장 동력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반기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으로 남북이 공존하는 경제공동체 마련이 조속히 시행될 것 기대한다.

김예지 기자 kimyj@

<b>전기신문</b> electimes.com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3회) 등록 서울, 가50118	
사장·발행인 이형주	편집인 이흥우	편집국장 유희덕	인쇄처 문화일보
주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87길 8 (등촌동) (우)07664		대표전화 (02)2168-1300	
사 장 실 (02)2168-1301~2	광고매팅팀 (02)2168-1351~7	광고문의 (02)2168-1351~7	
부 사 장 실 (02)2168-1303~4	FAX 2168-1349	FAX 2168-1349	
편집팀 (02)2168-1312~5	경영지원팀 (02)2168-1306~8	구독문의 (02)2168-1306~8	
에너지 Biz팀 (02)2168-1320~4	FAX 2168-1349	FAX 2168-1349	
산업팀 (02)2168-1330~4	사 업 팀 (02)2168-1360~1		
디지털뉴스팀 (02)2168-1340~2	FAX 2168-1349		
FAX 2168-1349			
매주 월·수·금요일 발행 구독료 월 15,000원 연 180,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LED조명 현장맞춤 컨설팅 지엠디주식회사

www.dblightec.com www.samjin.co.kr www.sylbest.com/ko www.jamled.com www.finetechnix.com www.icepipeled.com www.partner-21.com www.5song.co.kr www.airtecsys.com

							<b>1. 가성비</b> : LED조명 품질비교분석 <b>2. 최저가</b> : LED조명 가격비교분석 <b>3. 현장 AS</b> 1~5년 이상 : LED조명 사후관리 비교분석
내압방폭등	비압화 방폭등	LED공장등	LED 다이아몬드광기	LED경관조명	주차램프등	고출력램프	
엣지형관등	버림형관등	주유소등	디온라이트	디램도 노출등	빙 습 등	기 로 등	기 로등 POLL

LED조명 비교분석으로 동등이상 제품  
최저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지엠디주식회사

컨설팅 : 032-578-5222. 견적·발주 : 031-901-48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정방산로24 웨스턴타워3 823호  
전화 : 032-578-5222 / 031-901-4829 FAX : 031-919-4828  
www.클로즈미.com E-mail : eoth9075@naver.com